

여성 자치 연대 제 1차 총회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자치 단체 연석회의가 논의를 통해 회의체에서 연대체로 방향을 튼 후 연대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학 학교 공동 기획, 공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총회는 연대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서로의 공통 기반을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 당면한 사안에서의 현실적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이상 장담의 글을 멋대로 해석함)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오지 않아 더욱 아쉽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이 총회가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더 이야기해 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는 회의록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글자 그대로 회의록입니다.

결정된 사안은 간추려서 따로 게시할 것입니다.

I. 여성 자치 단체들의 연대를 위하여

1. 연대체의 필요성

(현재 회의체에서 연대체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과연 필요한 일인가?)

2. 연대체의 기반

(우리는 무엇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여 모일 수 있는가? 기독교 여성 모임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장담: 아직 연대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임. 연대체가 자치 단체 활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연대체여야 한다면 공통의 기반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할 듯.

생각해 보자. 기독교 여성 모임도 자치 단체 연대에 낄 수 있는지.

회의체라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드러나 연대체를 사고했을 때는 쥔고 넘어갈 부분들이 존재한다.

성향: 회의체와 연대체의 차이. 회의체는 필요에 의해. 연대체는 고통의 기반에 의해...

똑자: 기독교 여성 모임과 신과대 물구나무는 다르게 봐야 한다.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물론 공통의 기반이 전제 돼야 한다.

이를 만드는 과정은 필수다. 연대는 단기적 필요로만 얘기할 수 없는 문제.

운동에 대한 필요와 의지가 문제. 기독교 여성 모임도 우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기는 할 거다. 사안 별로 다르나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뭔가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연대체가 폐쇄적일 수 있다는 비판은 추상적이다.

포용이라는 오만한 개념이 아니라면 공통된 기반을 확인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효라: 여성주의가 뭔지, 공통된 기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선 논의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진찰: 회칙으로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되고, 연대체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여성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더라는 함정에 빠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차라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는 것이 나올 거다.

혼란- 11대 참여 여부는 연대체에 대한 논의를 떠나야.

똑자: 지난 회의에서는 같이 한다 안 한다 의견 분분.

장담: 선거시 특수한 상황은 지났고 관계는 변할 수도 있다.

자치 연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일들은 진행되고 치이고 하면서 자치 연합과 같은 오류도 발생 가능. 언어화된 기반이 없고, 공개적인 논쟁이 없이 다만 서로 비슷하리라는 추측만...

이런 추측은 그리 튼튼하지 않을 수도. 단 공통기반이라함은 특정 사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이야기해야.

왜 우리는 혼란스러운가? 얘기해 보지 않아서다.

똑자: 규정, 언어화는 필요하다. 만약 자주적 여성운동의 경우를 상상하라 명확한 기반이 없다면... 그들이 우리와 하기를 원하면...

그 때 가서 난상 토론을 벌일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는 해야.

(잠깐 기록을 못 했음)

진찰: 공유할 내용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연대 과정 속에서 내용을 생산하자.

현재까지 만들어진 생산물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를 찾으려 한다는 것은 무의미

테제 정하고 1년 계획 짚시다

틈틈: 선배들의 지원금 어떻게 쓸까? 또 복사실 정해 놓고 한꺼번에 자료 찾아가고 결산하고 했으면... 구상대가 좋겠다

3. 초이-여노 대런 이제 개인 자격이다. 막연한 당위성만을 가지고는 안된다

장담: 자치 단체 하나가 참여 하거나 하는 것은 무리요, 의문

시타: 회의에 나가서 정리해서 다시 얘기 아직 얘기하기는...

장담: 연대 내 자치 단체 상황으로는 성폭력 연대 회의에 나가기가 마땅치 않음 소통 채널로 1인 나가는 선만 가능 여노대런도 만약 나서는 자치단체 있으면 맺어주고 무슨 얘기 있는지 보고하고

이다: 개인적으로는 관심있는 자를 박거나 운영진을 보내거나 그게 현실적

장담: 아예 안 나갈 수도

초이: 토론회(14일) 다들 가보는 것이 판단 내리기에 좋겠다.

시타: 다음 번 회의 때-테제 정하기, 원칙, 공동 사업 1년 계획 또 연대회의 여노 대런 들어 보고 판단

초이: 테제는 천천히. 단 원칙만 다음에

III. 여성주의자들의 생존을 위하여

1. 공간 이용에 관한 논의

2. 예산 자치제

1. 시타: 자료 복사(통신방에 띄워 놓은 것임 싸움의 원칙들임 참조하시길) 공간 확보 투쟁에서 행동의 일사 분란함이 요구된다 읽고나서...

초이: 공간 투쟁? 우리 입장이 앞으로 11대에 대한 계속적인 입장이 될 것 승복하기 싫어 그러나는 식으로 비취져서는 안됨 외화되었을 때 왜곡된 모습으로 비취지면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장담: 시타가 얘기하는 부분이 공동으로 싸워야 하는 부분.

투쟁 의의 알려내는 것이 더 중요 공간 쓰는 방식은 다양해서...

서로 피곤하게 되어서는 안됨 동쪽 방이 있기 때문에 지형이 또 달라졌음. 자치 단체 안에서 이야기는 지속

초이: 두 입술은 어찌 되노?

진찰: 두 입술만의 공간이 아님. 두 입술도 원칙에 대해 긍정 문제는 두 입술마저 나가게 됐을 경우와 생도의 경우가 미묘해진다.

장담: 구상대 옆의 한 방을 두 입술이 알아봤지만 문제 많은 방이다.

시타와 누군가: 아예 처음부터 정공으로 캐비닛에 관한 논리도 바꿔야! 필요해서 쓰는 사람의 것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

전화기도...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 운동만의 원칙은 아니므로 자보전과 동시에(일단지지 그룹을 형성한 뒤에, 현재 게르니카, 하리 등과 이야기를 트고 있다고 학우 대중에게...

학생회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그룹들도 끌어들이자. 또 입방 예배도 안티를 걸어야. 우리의 자료는 무궁무진, 단 주의해서 전선을 그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오느밤부터 토론방(통신상)에서 합시다.

장담: 통신상에 비밀방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시타: ID만들자는 얘기 다시 ...

2. 틈틈-제안서-따로 통신에 띄울 테니 참조 바람

99년 예산 자치제의 문제- 학기 시작 전 관리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작년 자치 단체 연석회의 때와는 지형이 다르다.

내력을 총여가 실사할 권리는 없다. 볼 수는 있지만 간섭은 안 됨! 작년 총무는 틈틈이었으며 99년 테이블에 대해 원칙은 새로 정할 수도

일단 틈틈의 제안서에 대체로 동의 하였음

틈틈이 올려 놓으면 꼭 찾아 보시기 바람

세미나 첫 모임-일요일 오후 3시 총여실

연락들 바라며 97이상 간사들은 2시에 미리 만나 프로그램을 짤다.

굉장히 지리하죠? 더구나 좀 늦었네요. 기숙사가 정전이 되는 바람에..

결론만 보기 쉽게 널 아침에 올릴립니다.

우리가 뭐하는 애들인지는 보여야 하지 않을까? 자치 단체 회의체- 우리 존재 알리기에는 역부족

이다: 거대한 연대체가 아니라 점조직으로서만이 다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다.

장담: 자치 단체의 독립성 보장, 운영진은 따로 두고 문제는 크지는 않다.

초아: 우리가 친분만으로 모인 것은 아니다.

연석회의는 물질적 도움만 주고 받았을 뿐이다.

이다: 거대체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되도록 외부적으로 자치 단체 연대의 이름을 걸지는 말아야

시타: 관악 여모의 예를 들 각 자치 단체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자치 단체들끼리 의견 공유와 활동 공유가 충분히 될 때만 관악 여모의 이름을 걸고 움직인다. 각 자치 단체 독립이 남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동의. 그러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할 때 왜 이것이 공동의 이름인지 왜 이런 모임을 같이 하는지 선은 긋기는 해야

초이, 시타: 선을 긋도록 하자. 막연한 우리 사이의 연대감을 그냥 두지는 말고 인지하고 확인하지는 뜻이다. 이름 거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리하면 되는 것이다 선협적으로 원칙을 정할 필요는 없다.

이다: 항상 빠지는 오류를 경계해야. 내부적 연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정치적 기반은 서로 수위를 맞출 수 없다.

초아: 지향점 설정은 못박기가 아니다.

이다: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성 자치 연대이라면 여전한 것?

시타: 하나의 강령이 없을 수도 입장은 변화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자 물론 사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 보이겠지만

초아: 강령이 아닌 테제를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

시타: 이를테면 우리는 여성 해방이 타협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성폭력은 이러 이러한 것이다 등, 그야말로 최소한의 테제다.

이다: 모임에는 가입/비가입 절차 등이 필요한 법

'각자의 방법 존중' 이라는 걸 명문화시킬 수도

장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테제는 다음 모임 때...

II. 여성 자치 연대를 위하여

1. 여성 자치 연대를 실체를 갖고 활동하기 위한 체계는? -운영진의 구성이 제안된 상태이
조

2. 자치 연대와 자치 단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자치 연대가 상위 조직
되거나 자치 단체들과의 활동이 괴리되 않기 위한 장치는?(체계는?)

3. 다른 학교들과의 연대 활동(여노 대련, 성폭력 연대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자치 단체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 장담: 원칙 구성이 필요하다. 일단 자치 단체의 일원은 아무나 오게.

운영진 위상 등도 이야기 하자

시타: 운영진이 필요한 이유는? 즉 센터. 외부 연락 문제도 있고 총무, 연락, 편집 주체 등
틈틈: 필요한 것은 대표와 서기 정도?

초아: 소식지 등에서 편집 주체는 필요하니까

시타: 생도에서 하는 것도 좋다

장담: 대표가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듯 운영이 자치 단체 활동에 방해가 되선 안됨 일은
그때 그때 분배.

이다: 연락책은 3명 정도... 통신방과 겹치지 않았으면(?) 또 자치 단체 장들은 곤란

시타: 즉 운영진의 조건과 할 일은 자치 단체 장이 아닌 자로 자치 단체 간의 교통 정리, 연
락, 소통 등(명목상) 소식지 발간 초아: 회의에서 대표만 모여 속삭이는 불상사는 없게.

여하튼 운영진의 임기는 1학기

다양한 자치 단체가 여력에 따라 버티게

시타: 전제된 공동 사업이 있다?

2. 장담: 공동 사업 회수와 테두리 정해야(미리)

시타: 기준은: 공동으로 할 일의

장담: 얘기해 봐야. 1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초아: 예를 들어 38이나 51, 여성제 등 정도

이다: 참여 하지는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배려가 요구됨 그런 경우는 조건이 되는 한에서
만 참여.

시타: 그러면 같이 할 일은 지원금 용도 관련 회의와 일상적 활동의 소식 공유 어떻게 움직
일지 품앗이, 남은 돈 어떻게 쓸까 문제 논의, 외부 단체 제안시 논의, 그리고 위의 경우(38과
같은) 이 이외에는 각각의 자치 단체가 알아서...

똑자: 선거 때 한 얘기가 그 내용 (할 일) 아닌지?

진찰: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모르겠군. 여성 주의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공유하지 않으면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각자의 자치 단체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미리 뭔가 '가정'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

장담: 연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나 연대의 형태와 수위는 다양하다.

연대의 양상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지향점에서 혼란이 올 수도

어떤 연대체 방식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초아: 즉각적 필요/ 장기적 목적 이라는 갈등인가- 이것이 논의의 장애물인가? 그게 그리 비중이 있나/ 중요하나?

장담: 이 이야기는 '체계'와 관련지을 수 있다.

초아: 양자 택일의 문제(즉각적 필요/ 장기적 목적-정치성) 은 아니라고 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문제는 '강제성'의 정도가 아닌가.

누군가: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 된 것으로 아는데.

장담: '예산 자치제'를 보자. 자치단체 연석 회의-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자치 연대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똑자: 그건 아님. 자치 연대의 원칙 외에 있는 그룹도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권을 갖고 총여 예산 자치제에 참여가 가능하지 않는가? 초아: 그렇다면 자치연대는 예산자치제 테이블과 별개의 공간이다. 그래서 자치 연대는 정치성을 띠어야 하고 예산자치제를 자치 연대의 돈 문제인 것으로 사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연의 예를 들) 진찰: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 - 강제성을 부여하나?

장담: 강제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테두리를 긋는 문제. 이게 중요 어떤 목적인지가 문제죠.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연대와 연대체는 구분해야.

진찰(농쳤음)

장담: 테두리 그을지 아닐지의 문제다

(초아와 진찰-연대에 관한 이야기 농쳤음.)

똑자: 자치 연대 참여자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애긴가? 진찰: 그건 그 상황에 달린 것이다. 부분적 동의자-참여시킬 것인가 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장담: 테두리를 긋는 것. 그들과 부딪힐 부분이 많다는 거지.

11대와 기타 등등과 우리 자치 연대가 연석회의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자

효라: 영 아니 애들을 안 끼우는 것이 연대체라면 특정 단체의 참여 여부는 분명해질 것

장담: 어떤 연대체를 만들어가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논의가... 그래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왜 연대체 선택했냐 하는 확인과 논의 무엇 때문에 어떤 기반 때문에-나는 정치성을 띠는 연대체를 주장 모든 단위가 오게 할 수는 없다.

초아: 거기서 동의하는지 확인 다같이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서로 비슷한지는 앞으로 확인하고 차라리 테두리를 어떻게 할건지 얘기하는 것이...

장담: 여성주의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치 연대 테두리, 그게 색채 가질지 얘기해야. 그냥 자치 단체 포괄 수준이 옳은 것인가? 똑자: 자치단체들을 포괄 포용하는 것은 11대 총여만의 의무다

초아: 여자연은 모든 여성 자치단체 포괄, 그러나 현실대로서는... 비온드의 경우 여자연 이다라는 사고는 없었음 왜? 활동을 달리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타: 그 당시에 정치성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태까지의 논의가 기독교 총여가 들어선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인데, 정치성은 당연. 표방해야. 이것은 배제의 논리가 안되려면 어찌해야 할까? 테두리는 그어져야 한다.

초아: 공감

진찰: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외부에서 규정되는 것이 정체성 우리가 굳이 원칙을 내세우거나 세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위험

이다: 지나치게 대외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우리는 친부니 있었고 그러나 정말 같은 편인지는 모른다. 우리 간의 감수성도 매우 다르다 표현법도 우리 안의 차이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와 동화되는 기대는 안 한다 물론 문대는 예외적 경우이기는 하나...

연대-내부적 도움 때문이지 하나의 정파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차라리 사안 별로는 이름을 따로 걸고 자치연대는 하나의 지하 조직에만 머물러야 한다.

틈틈, 똑자: 지금 상황에서는 뭉쳐야 산다고 생각한다. 내부적 도움이라는 이유가 있으니 단 순히 단기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다.

자치 연대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고 외부적으로 연대체로 보여져야 하지 않을까?

장담: 틀을 긋는다고 해서 새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